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축 세례 ***



6월 16일(일) 중 고등부 학생 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 오늘 국수잔치는 쉽니다.
- 6월 19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6월 23일(일) 단식모금 운동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6월 30일(일)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6/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9구역	청소	13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6월 05일 ~ 11일)

교무금	5,713,000원
주일헌금	5,162,000원

- 감사헌금 박옥연 5만원 임형석10만원 박홍민10만원 김하린10만원 채수풍20만원 9구역국수잔치 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6/16	백희자	오성환	신종구 윤상기 정재경
6/23	권태희	심재순	도현만 최웅조 민옥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6/16	최승일	최영만	최창렬 최석준 황태영	하재민
6/23	김영배	김인기	손상민 박용환 박형순	박승환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야	6월 23일(일) 11:40	강당
사목회의	6월 27일(목) 19:40	강당
성체분배자회	6월 30일(일) 교중미사후	성체조배실

수능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을 하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홍선희 베로니카(010-4435-7375)
-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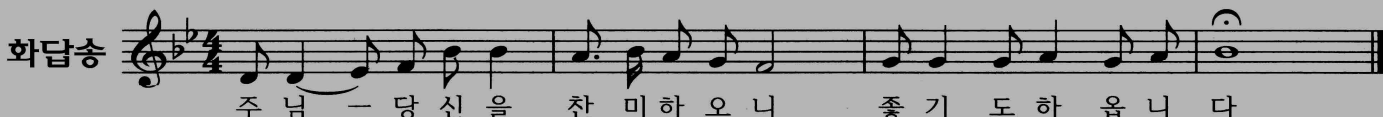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월 생활환경 캠페인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76 ♪ 예물준비 : 215, 212 ♪ 영성체 : 179, 168 ♪ 파견 : 453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00.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세상과 맺으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어 당신의 보편적 주권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총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는 성자께서 만물을 성부께 데려가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세상의 피조물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형태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신비롭게 간직하시며 그들의 목적인 총만으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탄하셨던 들판의 바로 그 꽃들과 새들은 이제 그분의 빛나는 현존으로 총만하게 됩니다.

제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101.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을 인식하지 않고서 그 증상들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활동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이 왜곡되어 현실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차근차근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이 차지하는 자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1. 기술: 창의력과 힘

102. 인류는 자신의 기술력 때문에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두 세기에 걸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증기 기관, 철도, 전신, 전기, 자동차, 비행기, 화학 산업, 현대 의학, 컴퓨터 공학과 더불어 좀 더 최근에는 디지털 혁명, 로봇 공학, 생명 공학, 나노 공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기뻐하고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는 엄청난 가능성에 흥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 이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류가 그 시초부터 지녀 온 특징입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이 점차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촉구하는 내적 긴장을 나타냅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협하고 제한하는 많은 폐단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전, 특히 의학과 공학과 통신의 발전을 어찌 인정하지 않고 고맙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대안들을 마련해 준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업적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